전남 내년예산 상정 거부…도의회 '몽니' 논란

"사전 협의 미흡" 朴의장 직권상정 안해

朴지사 제안설명 등 취소…차질 불가피

전남도의회가 애초 예정된 내년도 전남도 예산안을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 미비를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예산안 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의장 직권으로 전남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파행이 빚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가 제출한 총 5조2천46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시정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은 "본회의가 열린 날 예산안을 받아 봐 도의 예산이 얼마인지, 농업과 수산업 예산은 얼마인지 등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원들과 적합한지를 논의한 뒤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장의 이날 예산안 미 상정 배경에는 집행부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 의장은 "전남도 교육청의 경우 지난달 말 부교육감과 예산과장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서 "전남도는 예산안이 책자로 나오기 전에 설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뒤늦게 지난 11일에야 예산담당관이 찾아와 보고한다고 해 돌려보냈다"며 불편한 심기를 밝혔다.

이날 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예산안은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등과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어 빨라야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등 예산안 심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예산안 상정이 보류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박 지사의 시정연설과 제안설명도 취소되자 전남도는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원인 파악에 나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당시 예산안 설명을 담당과장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다"면서 "다음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바마, 中 대학생과의 대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상하이 과학기술박물관에서 중국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후 인사하고 있다. 오바마는 18일 한국을 방문해 다음날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연합뉴스

"지하철 스크린도어 주먹구구 설치"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재신 의원(민주·광산2)은 16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하철의 안전 이용을 위해 도입된 '스크린도어'가 이용객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하철 1호선 20개 역사 중 77억2천700만원을 투입, 금남로4가역 등 9곳에 스크린도어가 설치했다. 하지만 이들 9곳 중 4곳만이 이용객 빈도가 높은 상위 10위권이고 나머지는 5곳은 상대적으로 이용객 수가 적은 역사에 설치돼 있다.

특히 하루 평균 이용객이 4천81명(8.7%)으로 전체 20개 역사 중 이용객 수가 두번째 많은 남광주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고 반면 19번째로 이용객 수가 717명(1.5%)에 그친 김대중센터역에는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지하정거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광주지하철 2구간 6개 전체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며 "1구간도 점차적으로 추가, 모든 역사에 설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먹을거리 잔류농약 91배 과다 검출"

광주시의회 진선기 의원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진선기 의원(민주·북구1)은 16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식탁에 오르는 채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91배나 높게 검출되는 등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1천283건 중 16건이 잔류농약 과다검출 등으로 적발됐다. 특히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농약성분 엔도설판의 경우 고구마순에서 기준치(0.1㎎/㎏)보다 91배(9.1㎎/㎏)나 높게 검출됐다. 또 메트코나졸은 쌈추에서 26배(1.29/0.05), 루페누론은 상추와 쑥갓에서 10배(2.1/0.2) 이상 기준치보다 과다 검출됐다.

진 의원은 "도매시장별 주1회 선별해 잔류검사를 하다보니 농약과다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소 설치해 전수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5·18재단 14년만의 첫 행정감사 무산

윤광장 이사장 이유없이 불출석…시의회, 19일 재출석 요구

1994년 설립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던 (재)5·18기념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재단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감사가 무산됐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감사 대상 기관장이 아무런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며 사실상 감사 거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18기념재단에 대해 사상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했으나 윤광장 이사장이 시의회에 아무런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행자위는 5·18기념재단 감사를 19일로 연기하고, 윤 이사장에게 다시 출석 요구를 할 방침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감사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만약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윤 이사장은 출석 요구를 받고도 시의회에 아무런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이사장은 "5·18 30주년 행사 준비 관계로 서울 출장 중이다"며 "재단은 상임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사장은 비상근자로 업무추진비나 봉급도 받지 않는데 꼭 출석해야 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숙 행자위원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다"며 "설혹 감사보다 더 중요한 업무로 출장을 갔다면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될텐데 모든 절차가 무시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정부 출연 지방교부세도 광주시 출연금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올해 초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포함됐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14년 동안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해서만 광주시로부터 2001년 8월과 2008년 7월 두 차례 감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전반적인 업무·재산에 대한 감사는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박정욱기자 jwpark@

현장과 시각

'루저' 발언 마녀사냥

강 필 상
여론매체부 기자

최근 때아닌 루저(loser·패배자) 논쟁이 온·오프라인을 달구고 있다. "키가 180이 되지 않는 사람은 루저다"라며 KBS 2TV 오락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미수다)에 출연한 한 여대생 발언이 수일 동안 신문, 방송 등은 물론 인터넷을 도배하는 등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루저 발언의 패러디도 등장하고 있다. 이름하여 '루저의 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패러디는 프로필 상 키가 180㎝ 되지 않은 유명인들 이름에 루저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로필 상 키가 171㎝인 미국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는 '톰크 루저'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틴 루터 킹은 '마틴 루저 킹', 177㎝의 빅뱅 승리는 '패배'로 바꿔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인기(?)와 달리 루저 발언이 논란을 빚자 미수다의 제작진 전원이 교체됐고 프로그램의 존폐위기까지 대두됐다. 급기야 최근 30대의 남성이 "키 작은 남자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KBS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모두 11건의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물론 루저 발언은 잘못됐다.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발언을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낸 제작진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친구들과 뒷담화로나 해야 할 말을 수만명이 시청하는 공중파 방송에서 당당하게 발언한 그 여대생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네티즌들이다.

루저 발언 이후 당사자인 여대생은 네티즌들의 '마녀사냥'에 걸려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 네티즌은 여대생이 방송에서 밝힌 실명과 학교 및 소속학과 등 신상정보를 토대로 과거 사진까지 들춰내는 등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가하고 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루저 원정대'를 자칭하며 미수다에 출연한 여대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모일 것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행동지침까지 만들고 있을 정도다.

이미 과거 '개똥녀' '된장녀' '군삼녀' 등을 통해 '마녀사냥'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정작 공직자들이 자주 범하는 문제성 발언에 대해서는 크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여대생 한 개인에 비난을 퍼붓는 것은 만만한 상대에게만 가혹하게 구는 '소아적 행태'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한차례 광풍에 휩쓸린 후 '이제 마녀사냥은 그만하자'라는 때늦은 반성이 네티즌들 사이에 제기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비슷한 마녀사냥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루저 발언은 제작진과 여대생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일부 네티즌과 부화뇌동하는 일부 언론들, 그리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수수방관한 우리 모두에게도 잘못은 있다. 또 다른 이름의 '인격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가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인식해야 한다. / kps@kwangju.co.kr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www.hanbitgosi.co.kr
2010년 공무원정원 4600명 증원 국가직 9급공무원 시험 4월 10일 국가직 7급공무원 시험 7월 24일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2012년까지 소방공무원 8,000명 증원예정
소방직전문학원
국내유일 시험장과 동일 소방체력측정기 도입
소방체력측정기 무료체험
가장경제적인 수강료 + 교재 5권 무료
6개월 합격확률제 95만원
이론강의 + 문제풀이 + 동영상 무료제공 + 체력측정
한빛소방직전문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 252-0252
7·9급 공무원 합격의 힘!
"역사" 한빛고시학원이 해냅니다.
7·9급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행정직/ 세무직/ 검찰직/ 법원직/ 소방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농업직/ 기술직/ 경찰직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올야간반
학원선택이 합격을 결정해!
한빛최고의 합격시스템 전국최강의 강사진, 최고의 시설에서 당신은 수강만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강 12월 1일 종합/단과반 (현직자 첫진도!)
첫개강 ▶12월 1일 = 강의시간 = 18:00~22:50
최다합격자 절대강자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 234-0234
자매학원 ▶ 김영편입학원(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한빛경찰학원(북구청 앞 062 262-3553)
최강단과
선석 팀투팀 기초영어 SHADOW ENGLISH
정승박 국어단과 목/금/토 15:30 ~ 18:30
김정근 한국사 단과 월/화/수 15:30~18:30
양승훈 행정학 단과 월/화/수 19:00 ~ 22:00
김정훈 행정법 단과 월/화/수 15:30~18:30
전재홍 교육학 단과 월/화/수 15:30~18:30
신희호 세법 단과 수/목 13:30 ~ 16:30
이욱현 회계학 단과 월/수 15:40 ~ 18:30
= 종합반/단과반 수강접수기간 =
11월16일부터 30일까지 (사전접수요함)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한빛고시학원